

# 르완다, 식민분리주의의 악몽

최종덕

2015.5.6. 04년 5.6 월호

중부 아프리카의 르완다가 벨기에의 식민지가 된 1916년 이후 르완다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기나긴 부족간 갈등이 결국은 1994년 100만명이라는 종족 상잔의 대학살로 이어진 엄청난 역사적 사태를 맞은 지 10년이 되었다. 대학살 이후 변모된 르완다의 정치상황은 민주화 과정을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혐난한 길에 놓여져 있다. 대학살 10주년 추모제를 2004년 4월 7일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치르면서,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르완다 국민들에게 종족을 떠난 국민의 대화합을 호소하면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과거 제국주의의 당사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의 냉담한 반응은 다시 한번 전지구적 인간 권리의 보편성이 무시되는 상황의 재연으로 비추어진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종족간 학살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침묵하는 또다른 인류적 범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히 자문해야 한다.

## 대학살 사태의 전모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르완다는 원래부터 후투족과 투치족을 중심으로 한 다종족 국가였다. 그런데 다수 종족인 후투족에 의해 소수족인 투치족과 일부의 온건파 후투족이 1994년 4-7월에 이르는 불과 100일 동

안 100만명이 살육되는 엄청난 인류 재앙의 대학살이 일어났다. 하루에 평균 만명 정도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당시에 살아남은 르완다인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친지들이 일주일 사이에 모두 피를 쏟으며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 속에는 자신의 두 자식과 남편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마을은 마을주민 모두가 살육당했으며 그 피의 흐름이 실개천을 이를 정도라고 했다. 당시 죽은 100만명 중에서 어린이들만도 30만이 희생되었고 10만의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다. 그 사태는 인간으로서 인간임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전인류적 재앙이었다. 그 사태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962년 벨기에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르완다는 다수 종족인 후투족이 정권을 잡았고, 그후 소수 종족인 투치족에 대한 기나긴 탄압이 이루어졌다. 1994년, 후투족 대통령이었던 하바리마나가 탄 비행기가 공항에서 로켓트 피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시간 후 대통령 경호대는 르완다 수도인 키갈리에서 즉각 투치족에 대한 죄의 응보를 선포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포함한 투치족 전체에 대한 살육을 시작했다. 최초 대통령 경호대와 르완다 라디오선전대에 의해 학살 주모세력이 급조되었으며, 그 조직의 핵심은 후투족 정치세력인 군인과 정치인 및 경제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후투족 일반인까지 가세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 한 예로 '인터아합'이라고 불리우는 비정규 군사그룹이 조직되었는데 조직원이 최고 3만명에 이르렀고, 최고의 강성조직이었으며, 살육한 수도 가장 많았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후투족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마을에 같이 사는 투치족들을 살해하도록 군인과 경찰이 나서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보통의 후투족조차 무차별 살육을 감행하였다. 살육 참여자에게는 현금과 양식을 보상했으며, 나아가 그들이 죽인 투치족 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는 특혜를 보장했다.

1994년 4월 7일에 시작한 이러한 상황은 7월 15일 정도까지 약 100일 동안 100만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을 피의 죽임으로 내몰았다. 당시 우간다에 난민으로 간 투치족과 일부 온건 후투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르

완다 애국전선(RPF)'은 4월 8일, 즉 암살사건 다음날부터 후투족과의 협상을 지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에 RPF는 군조직을 강화하여 르완다 수도 키갈리까지 진격하여 수도를 점령하였고 드디어 7월 초순에 후투족에게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100일 동안의 대학살을 끝냈다.

이 당시 서방의 국제사회는 르완다의 대학살에 눈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우선 서방세계는 대학살의 현장을 단순히 르완다 내부의 종족간 투쟁으로서 인식하였다. 특히 살육 참여자에게 물질적 특혜를 주는 기존 정부의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는 르완다 사태를 방관하였다. 식민지 역사의 책임국가였던 벨기에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자국 군인 8명이 사망하자 곧 르완다에서 철수해버렸으며,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여 아프리카의 상황을 가장 잘 알았던 프랑스는 르완다 내정비판만 하면서 수수방관하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나 이라크 후유증으로 국제적 관심을 뒤로 했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무관심은 곧,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과 미국의 압력에 놓인 유엔, 그리고 제국주의의 혼적을 여전히 갖고 있던 서유럽 세계가 저지른 또하나의 인류적 범죄에 해당한다. 르완다 사태의 역사적 배경을 인식한다면 이 점에 대해 인류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 르완다 대학살 사태의 역사적 배경

르완다의 종족 갈등은 사실 새로운 것이라곤 없었다.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중오는 오래된 제국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예사냥의 빼아픈 시대를 거쳐 월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원주민 종족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지형과 식생 권역에 따라서 자신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말에 들어서 서구 제국주의라는 힘의 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서구 제국주의의 '땅따먹기' 경쟁에 의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로 형성되자마자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식민지로 만들려 하다 보니 서구 세계의 국제정치 판도에 따라 인위적인 국가 경계선을 그어댄

것이다. 아프리카 종족의 생태적 삶의 지형을 무시한 채 그들의 입맛대로 국가 경계를 만들다 보니 한 종족이 갈리거나 다(多)종족이 몰리는 국가 경계선이 조작될 수밖에 없었다.

벨기에 역시 르완다를 1916년 식민지화했다. 제국주의 식민지 전략의 기초는 영국에 의해 전파되어왔다.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인도에 설립할 때부터 이미 작은 영국이 큰 인도를 지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영국은 식민 전략의 힌트를 인도의 역사적 배경에서 찾기 시작했다. 즉,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사회의 혼적을 찾아내어, 그것을 당대의 인도 사회구조에 정착시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인도인을 계급으로 분리시키고 아주 소수인 최상층만을 영국인의 지배구조로 흡수하였다. 나머지 하부 계층의 인도인들은, 인도인이 인도인을 자체적으로 지배하는 피라미드 지배방식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지배방식은 최상의 식민지화의 효율성을 창출하였다. 물론 인도의 상층계급은 영국인이 주는 사회적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런 다단계 식민 지배구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은 인도의 역사에 숨겨져 있었던 '사성계급'의 혼적을 되살려 오늘과 같은 질곡의 인도 계급사회를 정착시켰던 것이다.

다단계 식민 지배방식은 근대 유럽 제국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벨기에 역시 이런 방식을 르완다에 적용하였다. 벨기에는 르완다 내의 두 종족인 후투족과 투치족을 상이한 종족 실체로 간주하였다. 벨기에는 종족간의 차이와 차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선 종족을 엄격히 구분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였다. 벨기에는, 소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배가 더 쉬운 투치족에게 종족적 우월성을 부여했으며, 또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내부 정치권력을 부여했다. 투치족은 벨기에의 이런 정책을 반겼으며, 그후 20년 이상 그 대가로 경제와 교육의 측면에서 많은 우대와 혜택을 보장 받았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의 후투족의 반발과 분노가 커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지만 벨기애로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르완다 종족간의 내부 갈등과 증오로 인한 내분은 오히려 식민지 지

배를 합리화시키는 국제사회적인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후투족의 사회적 분노는 결국 1959년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후투족에 의해 투치족 2만명이 살해되었다. 이때 역시 벨기에는 수수방관했으며 이 사태를 일종의 종족간 대규모 폭동으로 전세계로 알렸을 뿐이다. 이 항쟁의 결과로 투치족 중 많은 사람들이 주변 이웃나라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로 망명하거나 난민으로 도피했다. 이런 식의 사태 악화는 결국 벨기에로 하여금 식민지 권력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르완다는 1962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다.

독립 르완다 정권은 당연히 후투족에게 돌아갔다. 그때부터 후투족의 역공이 투치족의 희생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까지만 해도 르완다의 내정위기 때마다 투치족은 심각한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그러는 가운데 르완다의 경제는 점점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으며, 후투족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우간다에 집중되어 있던 투치족 난민들과 반성적인 온건 후투족이 힘을 모아 르완다 애국전선(RPF)을 결성하고 반정부활동 및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애국전선의 우선되는 목표는 대통령 하바리마나를 하야시키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움으로써 고향 르완다로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이러한 애국전선의 세력화된 운동은 오히려 르완다 내부 후투족의 반동적 결집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우간다에 실체를 둔 애국전선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책임을 르완다 내에 살고 있는 소수 투치족에게 전가하면서 다시 투치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부터 하바리마나 대통령과 애국전선 사이에 상호공격과 협상이 오가면서 평화가 오는 듯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내정 불안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1994년 4월, 하바리마나 대통령이 탄 외교사절 비행기가 누구에 의해 로켓트 공격을 받아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르완다 전체를 죽음의 불구덩이에 빠트렸다. 불과 몇시간 만에 역사가 잊지 못할 대학살이 시작된 것이다.

## 대학살 이후

짐승 도살에 가까운 피의 대학살은 서방세계의 외면 속에 르완다 애국 전선의 강력한 반전으로 7월 초순에 이르러 끝이 났다. 7월이 다가오면서 수도 키갈리가 애국전선에 의해 점령될 조짐이 있자마자, 학살에 참여했던, 약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후투족이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인 자이레로 역(逆) 망명을 갔다. 이들 대부분은 학살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추측되었다.

르완다의 최우선 과제는 찢겨지고 갈려진 나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후 유엔 평화군과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르완다로 들어와 질서회복과 시설복구 및 의료지원을 도왔다. 7월 19일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다. 우선 새 정부는 자이레로 도피한 후투족 망명자들의 안전한 복귀를 약속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며 종족간 갈등을 화해로 전환시키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양 종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구성되었다. 대통령에는 후투족인 비지망구가 취임했으며, 각료들은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으로 구성된 애국전선의 멤버로 임명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의회선거 결과, 투치족 출신이며 애국전선 지도자였던 현재의 카가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03년에는 전국민의 80%가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의 후보가 나왔던 민주적 선거에서 카가메 대통령이 재취임하였다. 당시 선거에서 종족간의 흑색선전이 다시 제기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사히 치러진 민주적 선거로 평가를 받았다. 당시 카가메 대통령은 9년 전의 대학살 악몽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여 후투족, 투치족으로 투표하기보다는 르완다 민주국민으로 투표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은 사실 소수 투치족 출신인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기는 했지만, 국민의 '화합'으로서만 르완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신념의 표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살육의 피해자였던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더 큰 악몽의 고통을 주고

있다. 후투족 역시 그들의 광기가 어떻게 드러난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의심하면서 자기파괴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 모두는 일반 민 중이었고, 그들 모두는 오도된 권력의 희생자였음을 회미하게 느끼고 있다. 살육은 끝났지만 진정한 생명의 기운을 찾기는 어려웠다. 가족은 파괴되었고, 정의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언사일 뿐이었으며, 인간성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이후 새 정부에 의해 학살의 주모자급이었던 500명 정도가 사형언도를 받았으며 10만명 정도가 구금되었다. 그러나 대학살 주모자의 일부는 체포를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여 아직도 신병인도가 묘연하다. 졸지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의 친척과 친구들은 민주화와 정의의 실현을 아직도 멀게만 느끼고 있다.

## 국제사회의 반응들

지난 2000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르완다의 대학살을 중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2004년 4월 7일 수도 키갈리 종합경기장에서 6만5천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대학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카가메 대통령은 르완다 내부의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서방세계의 무관심과 제국주의의 역사적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외무장관 빌 그레엄은 대학살 후 10년이 지났지만 서구세계는 여전히 르완다 대학살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피력했다. 벨기에 외무장관은 10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나, 프랑스 외무차관은 예정을 앞당겨 도망가듯 본국으로 귀환해버렸다. 현 대통령인 카가메를 1994년 비행기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었던 프랑스정부의 발언으로 르완다 현 정권은 거침없이 프랑스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비행기 피격사건의 주모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족 그룹인 애국전선에게 그 혐의를 두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대통령이 암살당했다고 하더라도 1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학

살이 결코 면죄되거나 변명될 수 없다. 르완다 대학살의 역사적 사태는 르완다 내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그 주변의 상황과 시간의 역사성을 동반하여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중서부 아프리카 최고의 자원을 가진 나라 라이베리아는 전통적으로 친미성향의 나라였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해준 대가였다. 라이베리아의 수도명이 미국 5대 대통령이었던 몬로의 이름을 따서 몬로비아라고 할 정도로 친미적인 나라였다. 환상적 해변과 풍요의 야자수가 상징하던 아름다운 나라 라이베리아는 지금 포성과 파괴만이 난무하는 땅으로 바뀌었다. 2004년 들어 4월 초까지 벌써 20만의 국민들이 죽었다. 급기야 4월 10일에는 라이베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서방 외교관 가족들이 헬리콥터로 대피했다. 찰스 테일러 대통령이 1989년 집권한 뒤부터 따진다면 지금까지 50만명이 죽었다. 미국은 그들에게서 천혜의 자원을 가져오고 아프리카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가로 독재정권을 눈감아 주었다. 진정한 민주사회 설립에 관심이 없었던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피의 상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이베리아 국민들 역시 서방의 전통적 식민정책인 분리주의의 희생물인 것이다.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내전을 단순히 종교전쟁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이라크 성전과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미 국방성은 노골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소말리아를 기억하라!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그곳에는 지켜야 할 평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분명 라이베리아 살육전은 비극이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서로 살육을 자행하는 멀리 떨어진 그들을 구하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필요성이 있는 이라크에서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미국은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라이베리아 내전은 이미 시에라리온, 기니, 코트디부아르에 영향을 주어 무고한 민중들

이 죽어가고 있다. 평화로웠던 콩고민주공화국도 역시 내전에 돌입했다. 우리는 그들의 내전이 그들만의 전쟁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중서부 아프리카에서만 지금껏 내전으로 4백여만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들은 전쟁과 기아와 에이즈에 방치된 채 끝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 분리주의의 역사적 불행

우리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불행에 대해 아프리카 민중들을 결코 비난할 수 없다. 문명세계의 오만과 서방의 분리주의 식민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아프리카를 낳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아프리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방 제국주의 역사를 세심히 거름질해야 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색깔·지역의 분리는 광주항쟁, 더 나아가 한국전쟁과 4·3사태의 역사적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더욱 불행한 것은 외세에 의한 분리주의의 판형이 바로 우리 내면에 시나브로 안착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십자군 전쟁에서 700년간의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 나치의 살육,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증오를 유발하기 위해 누군가가 조장한 분리주의의 결과였다. 인류적 재앙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분리주의의 재생산구조를 깨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역사 속에 숨겨진 분리주의의 조작을 간파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프리카의 오늘은 단순히 못살고 무지한 사람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증오가 빚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